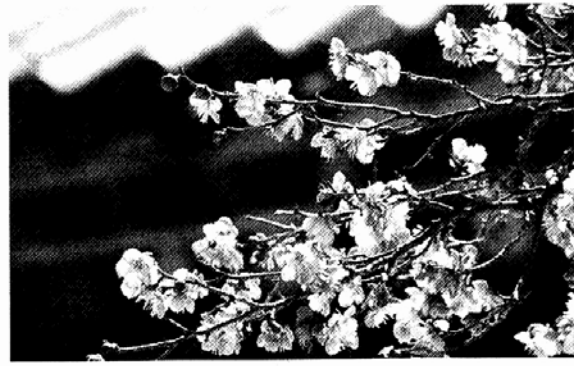


마음의 눈 띄우는 깨침의 목소리



스테디셀러 다지읽기

불교의 이해와 실천 1·2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은 계속돼 왔다. 불교 출판가도 예외는 아니다. 이종표(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지난 95년 내놓은 <불교의 이해와 실천 1·2>(대원정사)도 그런 시도로 세상에 나온 책이면서도 '교리 입문서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책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기 앞서 불교를 쉽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속단을 경계하는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세간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불교는 세간을 뛰어넘는 진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상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자신의 생각으로 불



아함경 바탕 교리 해설 사회문제 처방전 제시 이론보다 실천 중시

교를 이해하여 쉽고 속단한 사람은 결국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의식이 올바른 불교관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라고 글쓴이는 강조한다. 그는 그 지침서로 부처님의 근본교설이 담긴 <아함경>을 제안한다.

이 책은 바로 <아함경>을 모본으로 하여 삼귀의(三歸依), 중도(中道), 십이입처(十二入處), 오온(五蘊) 등 불교의 핵심교리를 강의식으로 친절하게 풀어 내고 있다. 논리적이기 보다 실천적인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 책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이 책의 내용이 교리 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문제와 연관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경쟁의 심화와 반목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독서의 대상이자 '신행과 연구'의 대상이다. 그것도 심도 있는 신행의 대상이다.

이 책은 신행에 앞서 탄실한 불교 이해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책이다. 교리의 이해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혀 놓았다는 점도 이 책을 권하는 이유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역사인물 집기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 선재 | 디자인하우스 |
| 2 | 금강경 강의 | 혜거 | 비즈니스북스 |
| 3 | 선의 나침반 | 송산 | 열림원 |
| 4 | 영가천도 | 우룡 | 효림 |
| 5 |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 정건 | 벗디의마을 |
| 6 | 선방일기 | 지허 | 여시아문 |
| 7 | 봄 여름 가을 겨울 | 정승태 | 이메 |
| 8 | 선의 역사와 사상 | 성본 | 불교시대사 |
| 9 | 아함의 중도 체계 | 이종표 | 불광 |
| 10 |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 성우 | 민족사 |

도서 안내: (02)737-0695

봄이 오는 길목 눈길끄는 불서 2권

자연스님 지음



내가 꿈꾸는 만큼 세상은 보여 인생 깨닫는 우화집

보에 관한 깨달음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불교에 대한 논의가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전개된다. 이 책의 제목이 '선의 나침반'인 것은 고해인 우리 인생에서 윤리에 빠지지 않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지혜의 배가 있어야 하고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나침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다. 송산 스님은 당부한다. "이 책을 읽되 말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마음으로 계속 수행 정진" 하라고 값 7천5백원.

지리산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정진하고 있는 자연 스님이 내놓은 우화 소설 <빼빼>(문학동네). 이 책은 어린 집오리(빼빼)가 나는 밤을 터득하는 과정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우화 소설이다. 이야기는 '왜 오리들은 날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아득한 옛날, 화산 폭발이 있었다. 북쪽을 향해 날아가면 무리 중 튼튼한 오리들은 화산재와 연기를 뚫고 힘차게 날아갔지만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붙잡혀 우리 속에 갇힌다. 긴 세월을 지낸 오리들은 나는 방법마저 잊어버리고 집오리로 살아가다. 하지만 하늘을 나는 것이 꿈인 어린 빼빼는 자신만

의 꿈을 찾아 험난한 수행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진리를 터득한다.

비둘기 할머니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거든 먼저 네 가슴을 사랑으로 채워야 돼. 세상은 네 스스로 가슴에 품고 간직한 만큼이란"며 사랑을, 소꿉새 아줌마는 "자기 몸을 버리고 나면 눈에 띄는 것 모두가 온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 된다"며 자신의 틀에 세상을 끼워 넣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다. 또 두루미에게서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명상법을, 올빼미에게서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을 배워 빼빼는 마침내 날아오는 데 성공한다.

오리이면서 날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못생긴 오리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관습과 제도와 일상에 길들여진 집오리 빼빼는 바로 '나'다. 집오리처럼 먼저주는 먹이만 먹으면서 영영 땅을 뒤뚱거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날아오르기 위해 험난한 고행의 길을 택할 것인가. 글쓴이의 대답은 명쾌하다. "고행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행의 쓴맛을 본 자만이 날아올 수 있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송산(화계사 조실) 스님이 지난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 설법해 온 가르침을 집성한 <선의 나침반 1·2>(현각 스님 엮음, 허문명 옮김, 열림원)은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수필집이다. 스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이들에게 바른 구도의 길을 자상하게 일러준다.

오랜 수행의 결과로 터져나온 말씀이기에 내용 전반에 걸쳐 생동감이 넘친다. 그렇다고 심오한 깊이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바른 수행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이 참선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질문을 깊이 하게 되면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리하여 '오직 모를 뿐'을 깨달아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고 다른 종성을 고통에서 구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눈뜸'이다."

이 책은 송산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승·대승·선불교의 3대 영역으로 나누어 범문한 설법 모음이다. 1부는 상구보리 하회종생이라는 불교의 목적과 소승·대승·선이라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불교 전통과 불교를 구성하는 불·법·승 삼

현각스님 엮음 선의 나침반



'나는 누구인가' 물음이 참선 송산스님 설법 모음

화해의 눈으로 타종교 보기

김진 목사 '이웃 종교인과 함께하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기독교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웃종교에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찰, 불상 파괴나 장승, 단군상 파괴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 동안 개신교의 배타주의는 건강한 종교문화 형성에 걸림돌이 되곤 했다. 크리스찬아카데미 상임연구원 김진 목사는 그 원인을 불철저한 성서 이해에 있다며 개신교인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신간 <이웃 종교인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한울)는 목사이든 그 이웃 종교인에 대해 때론 무관심으로 때론 경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진솔하게 적고 있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성서의 새로운 해석을 보여준다. 또한 이웃 종교에 대한 자신의 체험과 여러 경험들을 함께 인용하면서 성서를 이웃 종교와의 화해와 평화의 가르침으로 읽게 도와 준다. 이러한 성서 읽기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웃 종교를 단지 미신이나 우상 숭배의 종교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값 9천원. 김중근 기자

재미 곁들인 인도문화 탐방

인도사상과 문화

알쏭달쏭한 지명이나 경박한 감성으로 가득한 인도 답사기에 실망한 독자라면 <인도의 사상과 문화>(여래가 대안이 될 것 같다. 인도의 주요 흐름을 역사·문화·사상별로 묶은 이 책은, 인도의 사상과 문화 읽기의 깊은 재미를 맛보게 해준다. 동국대학교와 선문대학교 등에서 인도의 사상과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글쓴이 문용식 씨는 "살아 있는 현실의 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된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상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도로 힌두교는 인도문화와 사상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즉 힌두교의 이해 없이는 인도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대 인도문명이 우리에게 여러 문화예술과 과학을 풍요롭게 해주었다는 거시적인 관점까지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대학 교재로 출간된 이 책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수준을 유지한 '인도의 역사와 문화 사상 대중화'의 본보기가 제시한 책이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禪이 오늘에 주는 의미

원연 스님 '선과 21세기'

이 글을 읽기에 앞서 잠시 가부좌를 하고 좌선을 해 보라. 그리고 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성해 보라.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의 참선에 대한 수준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선과 21세기>(들꽃누리는)는 체계적으로 불을 일으키고 있는 선(禪)을 분야별로 정리한 선 해설서다. '선이 무엇일까'라는 일



반인들의 궁극음을 해소하기 위해 쓰여진 책. 글쓴이는 <선방의 아침>을 내놓았던 원연 스님. 스님은 선의 역할을 비롯해 좌선, 간화선, 목조선, 염불선, 선의 변천, 선과 21세기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조목조목 설명한다. 이 책은 실천에 앞서 수행자들이 필요한 선에 대한 지식, 즉 선의 개념에서부터 수행법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값 6천6백원. 김중근 기자

신심있는 기도로 불보살님의 가피를!

월간 『법공양』에 철찬리 선재되었던 불교신학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침묵·회개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으로써 들어가는 문턱을 열어 보십시오. 기쁘게 공양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합니다.

4×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유점참회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하는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주는 관세음보살. 때문에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을 가장 많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 자신의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습니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여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남국선원장 해국스님이 알기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알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종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